

# 성 유대절 베드로

# 청담동성당

강남구 삼성로 720 (홈페이지: www.cdssd.org)  
 사무실: 02)3447-0750~1 팩스: 02)3447-0752

주 임 신 부 : 김민수 (이냐시오)  
 부주임 신 부 : 심 욱 (베드로)  
 부주임 신 부 : 방종우 (야고보)  
 전 교 수 녀 : 박정숙 (아그리피나)  
 좌희선 (보노사)  
 이새롬 (엘카나)  
 사 목 회 장 : 손영모 (가브리엘)  
 연 령 회 장 : ☎ 010-7186-7222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3시(어린이 미사),	오후 7시
	일요일	오전 6시, 9시, 11시(교중미사),	오후 3시(중·고등부), 5시(청년), 7시(일반)
평일미사	월요일, 토요일	오전 6시	고 해 성 사
	화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주 일 미사 전 30분
	수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평 일 미사 전 15분
	목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병자 영성체
	금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유 아 세 례
			관 면 혼 배

2020년 9 ~ 10월 본당 추천 도서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를 배운다**  
 (글쓴이: 자크 필립 / 출판사: 바오로딸)

이 책은 기도의 목적, 기도에 필요한 마음 자세, 하느님 현존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자신의 기도가 참된 것인지 알 수 있는 기준, 기도를 위한 실제적 조언들, 전구에 대한 소개 등 기도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어서 모든 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정상가: 11,000원 → 할인가: 10,000원

◎ **병자 영성체: 9월 10일(목) 오전 10시 미사 후**

◎ **초등부, 중·고등부 미사 잠정 중단 안내**  
 • 수도권 학교의 전면 등교 수업을 중단함에 따라 본당 초등부 미사와 중·고등부 미사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이번주부터 9월 13일(주일)까지 없습니다.

◎ **추석(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예물 접수 안내**

• 10월 1일(목)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돌아가신 조상, 부모, 형제, 자매, 친지, 은인들을 위하여 합동 위령미사예물 봉헌하실 분들은 9월 27일(주일)까지 **본당 사무실로 신청접수**바랍니다.

◎ **청담 영성학교 개강**

- 일시: 9월 10일(목)~ 11월 12일(목), 매주 목요일 8시
- 장소: 2층 대성전
- 내용 및 일정: 현대영성 9회

일시	주제	강사
9월 10일	헨리나웬- 영성 개요	한상봉 이시도르 - 『가톨릭 일꾼』 편집장 -
9월 17일	헨리나웬- 자비의 하느님	
9월 24일	헨리나웬- 예술과 구원	
10월 08일	시몬 베이유	
10월 15일	도로시 데이	
10월 22일	샤를 드 푸코	
10월 29일	존 헨리 뉴먼과 현대의 영성	최대한 세례자요한 - 대신학교 신부 -
11월 05일	사랑과 우정의 이야기: 자크 마리탱과 라이사 마리탱	
11월 12일	학자들의 영성: 로마노 가르 디나와 요셉 피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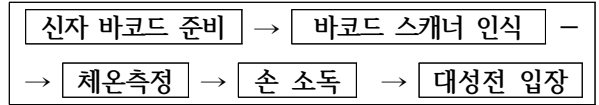
• 문의: 장 엘리사벳(010-9787-8539)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본당 지침 안내**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정규미사 외 모든 회합 및 모임을 중지**합니다.
- 방역을 위해 **성당 개방 시간은 매 미사 전 30분에 열며, 미사 후에는 바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신자는 미사 참례 및 단체 회합 등 성당 출입을 제한합니다. (주일미사 참례 의무 관련)
  -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발열, 기침, 인후통, 숨 가쁨, 감기, 기관지염, 폐렴 같은 호흡기 증상과 설사, 근육통, 피로감 등의 증상이 있는 교우.
  - 최근 2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있는 교우.
  - 고령자(80세 이상), 임산부, 만성질환자, 면역력이 약한 초·중·고등학생.

• **미사 참례 시 마스크는 꼭 착용**합니다. 미 착용시 정당입장이 불가능하며, 마스크를 코밑, 턱걸이지 않습니다. 성체를 모실때만 잠깐 벗습니다.

• **미사입장 전**



- 신자용 바코드는 성당 사무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네이버, 다음 카카오 QR코드는 사용 불가)
- **사용한 주보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집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신부님과 함께 하는 비대면 태교모임**

• 청담동성당 태교모임이 비대면 온라인 형식으로 오픈합니다. 9월 12일(토)부터 매월 2, 4주에 유튜브로 업로드되오니 주변 임산부 교우들께 알려주시고, 해당 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바랍니다. <유튜브검색어: 청담동성당 태교모임>  
 • 문의: 권 엘리사벳 (010-4600-2274)

◎ **빈첸시오 회원 모집**

• 어려운 이웃돕기를 위한 정기회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일: 9월 5일(토)~ 6일(주일) 매 미사 전·후  
 • 문의: 현 베로니카(010-7169-7025)

◎ **9월 7일(월): 춘천교구 후원미사 쉽니다.**

• 사회적 거리 2.5단계로 춘천교구 후원미사는 쉽니다.

성가번호 입 당: 456      예물준비: 510, 511      성 체: 496, 502, 506      파 견: 283

화 답 송

오늘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주임 신부의 독서 사목 이야기 (136)**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를 배운다」 (1)\_기도의 목적**

**교회는 기도의 학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루카18,1)고 가르치신다. “기도 안에서 영혼은 죄에서 정화되고 애덕이 자라며 믿음은 깊어지고 희망은 강화”(16쪽)되기 때문이다. 성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이 대희년에 반포한 「새 천년기」(2001)에 보면, 거룩하게 되고 성덕을 쌓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도에 대한 교육’임을 지적한다. 기도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중심이고 참된 사목 생활의 전제이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하느님과 친구가 되고, 그분 생명의 풍성함과 친밀함에 들어가며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고 하느님은 우리 안에 머무심으로써 상호관계와 사랑의 교환이 이루어진다.(19쪽 참조) 따라서 교황님은 기도 교육이 어떤 식으로든 모든 사목 계획의 핵심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결론을 짓는다.(22쪽 참조) 최근에는 몇몇 수도원에서 본당 신자들을 대상으로 <기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8월 원주교구에서는 배론 성지에 <기도학교>를 건립하여 “기도를 배우고 실천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 참 신앙인이기에 기도생활이 필수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신자들이 기도 없이 살아가고 있어 안타깝다. 기도하기가 어려우면 배우면 된다.

**기도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

하느님은 우리를 기도에 늘 초대하신다. “끊임없이 기도하라”(루카18,1), “늘 깨어 기도하라”(루카21,36), “간구하며 깨어있으라.”(에페6,18)고 하신 말씀은 하느님의 부르심이다. 우리는 이러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신앙이 결정된다. 그분의 초대에 응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신앙이다.”(24쪽) 예를 들어, 구약의 아브라함은 “가거라.”하는 주님 말씀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믿기만 하고 길을 떠남으로써 그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어 <순종하는 신앙>의 모델이 된다. 기도생활은 실리주의적 사고에 효율성과 이익의 논리에 따라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되지 말아야 한다. “하느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태도가 될 때 하느님은 풍요로움과 유익을 주실 것이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위해 ‘시간을 버리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 리지외의 소화 데레사 성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풍요로워지는 없음’인 것이다.”(25쪽) 이것을 ‘무상성의 원칙’이라 한다. “역설적이게도, 보상을 바라지 않는 기도일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26쪽)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성 요한은 “기도를 피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모두 피하는 사람이다.”(26쪽)라고 함으로써 기도의 목적과 이유를 단적으로 제시한다.

**성체조배 할 때 기억할 것**

성체 앞에서 조배하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은 행복하다. “기도를 통해 무상으로 하느님과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기도는 사랑하는 것이다. 시간을 낸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다른 이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는 우선 그와 함께 있는 것이다. 기도는 단순하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것을 가르쳐 준다... 꾸준한 기도는 이웃에 대한 관심을 배우는 가장 아름답고 효과적인 길이다. 기도와 이웃 사랑은 대립하거나 경쟁적인 것이 아니다.”(30-31쪽)

2020. 09. 06

청담동 성당 주임신부 김민수 이나시오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08월 26일 ~ 09월 01일)**

봉헌 예물		교무금 납부 현황	
연중 제 22주일 봉헌금	4,460,200원	총 세대수	2,555세대
청소년주일 2차 봉헌금	2,498,000원	총 납부세대	1,169세대
교무금	25,765,000원	지난 주 납부세대	8세대
성소후원금 ( 4건)	55,000원	총 납부율 (%)	45.8%
감사 헌금			
김 스텔라	100,000원	김 아우구스틴	300,000원
손재영	300,000원	윤 세실리아	50,000원
익명	200,000원	-	-
		<b>합 계: 950,000원</b>	